

2023년 상반기 온라인 아카데미

미응답?!

질문

질의응답



# 질문. 1

학교에 천식이 심한 학생이 있습니다.  
학생 부모님께 확인하니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  
네블라이저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.  
이런 경우 학교생활 중 천식발작이 나타났을 때,  
학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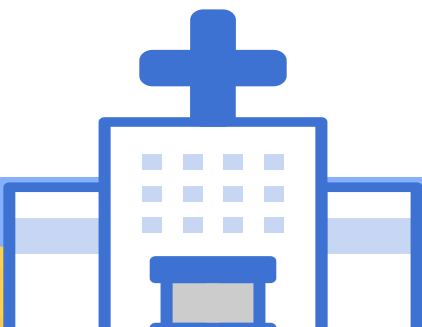




# 응답. 1

스테로이드 없는 약제를 원하면  
속효성 기관지확장제(베타2 항진제)만 있는  
벤톨린을 천식발작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천식 치료에는 질병조절제인  
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.  
부모님과 약물 사용에 대해 상의하시고,  
알레르기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 
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


여기서 잠깐!

# 천식조절제와 증상완화제는 무엇인가요?



**천식조절제는 증상이 없어도**

**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.**


증상완화제보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만,  
장기적으로 천식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.

**증상완화제는 필요할 때에만, 증상이 심할 때에만**  
**사용하며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.** 천식이 심한 경우,  
조절제 없이 증상완화제만 사용하지 않고  
천식조절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.

# 질문.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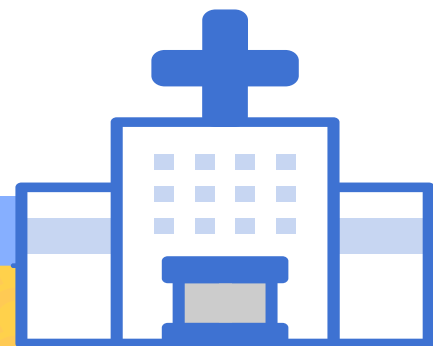
**천식이 있는 아이가  
체육활동(오래달리기, 피구 등) 후 호흡곤란, 빈호흡이 있어  
벤틀린을 3번 흡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을 경우,  
학교에서 경과 관찰을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요?  
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.**





# 응답. 2


**6-12세에서 50회 이상의 빈호흡은  
호흡곤란 증상입니다.** 기관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 
벤톨린을 흡입하여도 처음에는 약물이  
기관지내로 잘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.  
이때는 안정을 취하고 심호흡시키면서 약제를 천천히,  
반복 투여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 
**응급처치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,  
응급실로 신속하게  
이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**  
**(6-12세 분당 호흡수 : 14~22회)**



# 질문. 3

최근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 
알레르기비염 증상(눈이 붓고 가려움)이 심한  
학생이 보건실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.  
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 
지르텍 반알을 자주 먹여도 될까요?





# 응답. 3

**지르텍(cetirizine, 10mg/tablet)은 6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비염,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에 흔히 사용하는 약제입니다.**

**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인 “졸음”을 줄여 1세대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, 간혹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졸려 하는 환아들도 있습니다.**








**그래서 0.5 tablet(5mg)을 투여하기도 하지만,  
항알레르기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.**  
**약물 투여 시에는 부모님과 의논하여 사용하시고,  
이 학생의 경우 알레르기비염과  
결막염 치료(스테로이드 nasal spray, 안약,  
필요시 면역치료도 고려)를 같이하는 것을 권합니다.**

# 질문. 4

에포프림을 피부에  
발라도 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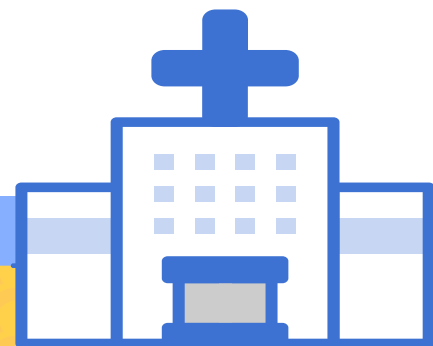




# 응답. 4

**에보프림(달맞이꽃종자유 추출물)은 연질캡슐 형태로  
현재 국내에서는 경구 복용 약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**

국내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어  
용법대로 경구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.  
에보프림의 아토피피부염 치료 효과에 대한  
연구 결과는 다양하여 일반적인  
치료요법으로 권고하지 않으며,





**중등증 혹은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 
보조 요법으로 제한적인 사용(경구 복용)을  
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**

**또한 대두유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환자는  
사용 금기에 해당하며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서  
주의가 필요합니다.**